

<진리는 나의 빛> 제작보고서

중급영화제작실습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영화연출전공 서 종 현
지도교수 심 광 진

2022 . 12 . 2

목 차

1. 서론

- 1) 작품 기획의 배경
- 2) 제작보고서의 서술방향
- 3) 로그라인

2. 본론

- 1) 작품 발상
- 2) 시나리오
- 3) 스토리보드 (그림콘티 / 플로어 플랜)
- 4) 연출방향
 - 촬영 및 조명 컨셉
 - 화면비와 촬영 장비
 - 미술 (의상 및 소품)
 - 로케이션 헌팅
- 5) 프로덕션
- 6) 후반작업 계획

3. 결론

- 1) 총평
-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부록

- 1) 시나리오
- 2) 일일촬영표
- 3) 플로어플랜
- 4) 그림콘티

1. 서론

1) 작품 기획의 배경

종교가 가진 영향력이 날이 갈 수록 줄어가는 현대에서 종교적 가르침에 귀의하여 인생을 바친 사람들은 과연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일원화된 가치관을 잃어버린 사회 속에서 과연 도덕, 종교, 정파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환속한 사제와 수녀, 스님과 비구니에 대한 조사를 했고, 종교인이 권위를 가진 시대가 지난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들은 분명 비종교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대하는 것은 맞으나 결과적으로 그들 또한 인간적인 본능 혹은 성정에 의해 변민하는 것은 다를 바 없었다. 그 중 사랑에 의해 종교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제작보고서의 서술방향

본 제작보고서는 연출자에 입장에서 기획 단계에서의 생각들이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녹아들었는지에 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프리 프로덕션 - 프로덕션 - 포스트 프로덕션의 순서를 따라 작성하였다. 작품 발상과 시나리오의 변화과정, 연출 방향, 프로덕션 과정에서 앞으로 해 나갈 편집 계획, 사운드, DI 계획에 대해서 작성하였다.

3) 로그라인

이틀 뒤면 사제서품을 받는 부제 윤성이 대모님의 부고를 듣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남편과 사별한 젊은 엄마 희진을 만나 같은 자살 유가족의 고통을 서로에게 털어내고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여동생 다경의 환영과 완전히 작별하며 상실을 치유한다.

2. 본론

1) 작품 발상

정결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 묻어두고 온 과오와 후회를 특별한 계기로 꺼내어보고 스스로 붕괴를 선택하는 영화를 만들고자 했다. 인물을 설정하면서 일상 속에서 정결함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보다는 아예 직업적 의무감을 가진 캐릭터를 설정하려고 했고, 그렇게 가톨릭 신학도라는 직업을 인물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종교인이라는 설정 상 사랑에 관한 왜곡된 인식이 과오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동생과의 사랑이라는 메인 사건을 구축했다. 더불어 동생과의 사랑으로 인한 붕괴를 치유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다. 동생 다경과 미망인 희진이 사실은 하나의 인물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반복과 변주를 주며 사건을 구축하였다.

2) 시나리오

초고에서는 동생과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성직자의 근친을 추적하는 인물과의 갈등으로 멜로드라마와 스릴러 장르로 시작하였다. 2 고에서는 스릴러적 요소를 제거하고 마술적 리얼리즘 성격의 환상을 첨가하여 재미 요소보다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나리오로 변화했다. 이후 동생에게 부여했던 사건을 윤성의 치유를 위해 만든 미망인과 아이 캐릭터에 나눠주었고, 시나리오가 진행되면서 아이를 빼고 여동생과 미망인 둘 사이에서 번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학도의 이야기가 되었다. 시나리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진리는 나의 빛 Outline

ACT 1	Opening Image	Theme Stated	Catalyst	Debate	Plot Point 1
	콜고다 언덕 눈물	서품식 리허설	대모님 부고와 귀향 작업실 편지, 그림	대모님의 시신은 어디에?	유골함과 다경 대모님 이야기
ACT 2A	B story	Fun & Games			Mid Point
	본당 신부와의 만남 원죄, 방화, 장례미사	종탑 위에 보이는 동생	종탑 위 울고 있는 희진과의 만남	윤성이 살던 보육원과 희진 사라진 희진의 남편	동생 다경과의 동침
ACT 2B	Bad Guys Close In		All Is Lost	Dark Night	Plot Point 3
	묘목을 갖고온 다경 불타버린 산에 묘목을 심는 남매	계곡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윤성과 다경	다경과의 작별	다경의 죽음을 인정	신에게 흡수하는 모습을 희진에게 보임
ACT 3	Finale				Final Image
	밤바다를 걷는 윤성과 희진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희진이 이끌어 동생이 죽은 종탑 위로 윤성을 이끈다	희진에게 동생이 사준 시계를 건네는 윤성	하룻밤이 지난 모습 윤성이 그린 희진의 초상 희진이 찍은 윤성의 사진	사제서품을 포기하는 윤성 묘목에 물을 주는 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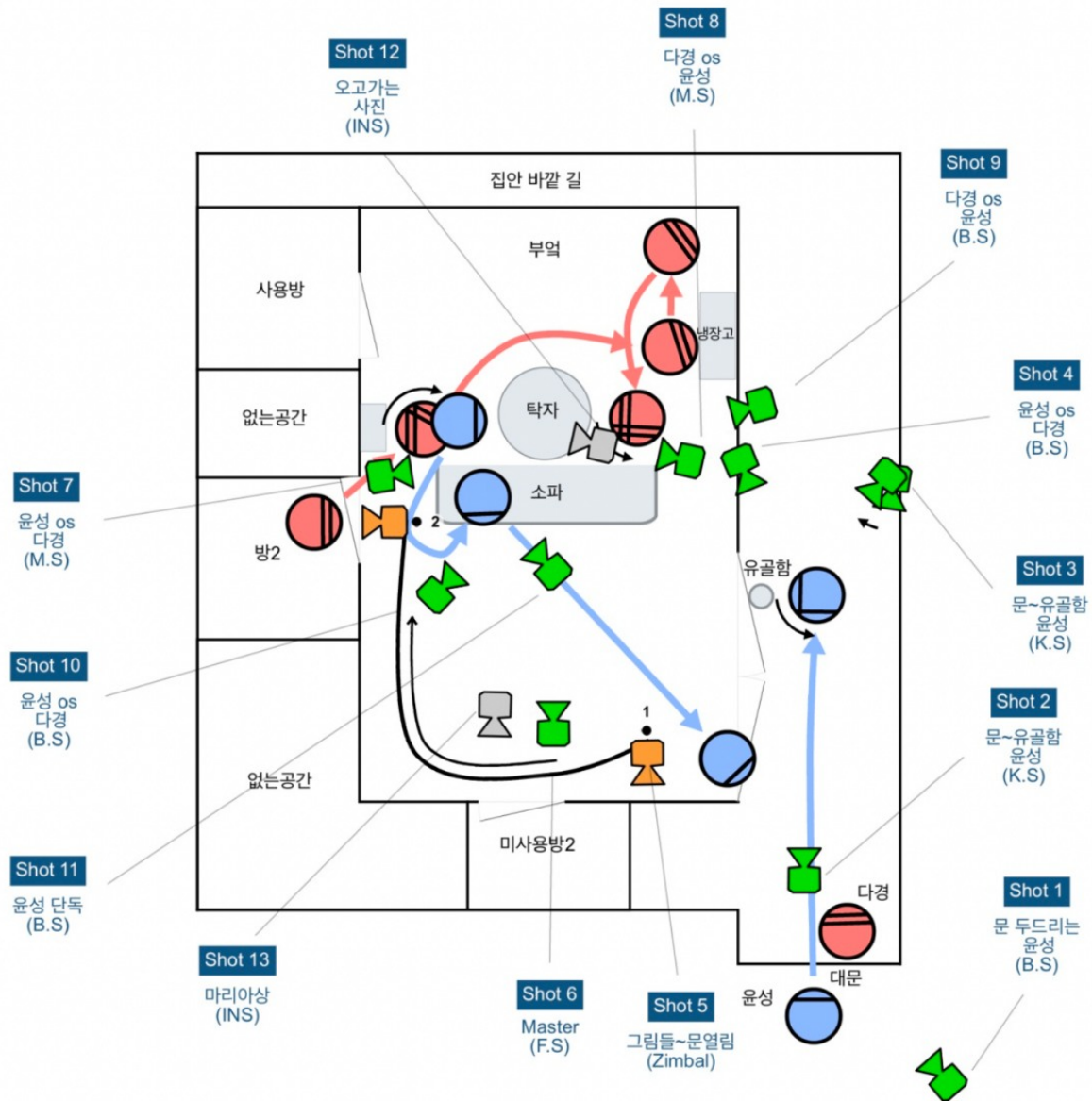
3) 스토리보드

스토리보드는 연출자 초안에서 100 페이지(300 컷)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촬영 직전 150 컷으로 축소하여 플로어플랜을 짜고 촬영에 들어가게 되었다. 촬영장에서 그림콘티는 연기연출에 이용하였고 플로어플랜은 촬영조명부와의 소통에 이용하였다.

1) 그림 콘티 (ex. 대모님 맥 원테이크 샷)

	열린 문에서 다경이 나와 그 옆에 협탁으로 가 쪼그려 앉는다. 이어서 팔로우
	쪼그려 앉은 협탁에는 마리아상과 예수 액자가 올려져 있다. 협탁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다경. 물건을 꺼내 일어나 우측으로 걸어간다. 이어서 팔로우.
	윤성이 앉아있는 탁자를 돌아 탁자위에 꺼낸 사진들을 올려놓고 냉장고를 향한다. 이어서 팔로우. 윤성 "무슨 말이야." 다경 "이틀 전에 돌아가시면서 산에 불을 내셨대. 윤성 "뭐? 제대로 알고하는 소리야? 왜, 왜 산에 불을 질러?"
	윤성의 어깨에 OS 건다. 다경이 냉장고에서 물통을 꺼내 한손에 들고 냉장고 문을 닫은 뒤 싱크대에서 컵을 하나 꺼내온다. 다경 "대모님이 화장을 선택하신 거지." 윤성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니 ~ 택했다고?"

2) 플로어 플랜 (ex. #07 대모님 덕 / 다경과의 재회)



4) 연출 방향

1) 촬영 및 조명 컨셉

〈진리는 나의 빛〉의 촬영 컨셉은 윤성이 보는 ‘환상’에 있다. 블랙 프로미스트 필터를 활용해 다경의 환영이 나올 때는 1/4 필터를 이용해 몽환적인 장면을 연출하였고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있는 희진이 나올 때에는 필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1/8 을 이용해 현실적인 연출을 하였다. 촬영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인물이 움직이는 장면에선 적극적으로 짐벌을 이용해 촬영하였고 짐벌 촬영분은 로케이션의 특징을 보여주는 설정샷으로 함께 쓸 수 있게 계획하였다. 조명은 극단적인 컨트라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게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2) 1.85:1 화면비와 촬영 장비

현재의 관객들이 보기에 이질감이 없게 하는 것과 고전 영화적인 화면비로 최대한 축소하는 것 두 가지를 타협한 1.85:1 을 선택하였다. 두 명의 대화 씬이 많이 나오기에 적합한 화면비이기도 했다. 카메라는 학교에서 대여할 수 있는 소니 시네캠 FX9 을 이용해 XAVC 6K 촬영을 A 캠으로 했다. RONIN RS2 짐벌 사용을 위해서 A7S3 를 B 캠으로 활용했다. 둘 모두 S-LOG RAW 방식의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후반 D.I 작업을 필수적으로 해야할 것이다. 렌즈는 XEEN CINE CF 렌즈 세트를 사용하였고, 조명은 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퓨처 1200D 이하로 스타렉스 5밴을 두 대 채워 성당 씬에서 각 스테인드글라스 별로 하나씩 조명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을 사용하였다.

3) 미술

- 의상

의상은 촬영을 하면서 기온에 따라 현장에서 대처하며 진행하였다. 촬영 전 최종안은 다음과 같았으나 실제 촬영에선 배우의 컨디션에 따라 결정되었다.

* 의상 최종안 일부



의상 정리

씬 1 골고다 언덕
윤성 - 수단+시계

씬 2 대성전
윤성 - 수단+시계
노신부 - 하얀 제의
7명의 부제들 - 수단

씬 3 작업실
윤성 - 수단+시계

씬 4 계단
수녀님 - 수녀복

씬 5 대성당 앞
윤성 - 수단+시계+코트
우체부 - 우체부 의상

씬 6 시골길
윤성 - 수단+시계+코트

씬 7 병원 앞
윤성 - 수단+시계+코트
엑스트라 남성 - 평상복

씬 8 대모님 댁
윤성 - 수단+시계+코트
다경 - 1

씬 9 종탑 아래
윤성 - 수단+시계+코트
다경 - 1

씬 10 시골 분당 내부
윤성 - 수단+시계+코트
신부 - 수단

씬 11 종탑 아래
윤성 - 수단+시계+코트

- 소품

시공간의 분위기가 90년대 후반 ~ 00년대 초반의 느낌이 나도록 소품을 사용하였다.

소품리스트 중 일부

하얀색 탁자보		신민채 구매	5000
테이블			
촛불		신민채 구매	10000
다경 사진액자			
이온음료			
낙서(마커펜)	오빠 바보; 희진 집		
천문사진들			
사진걸이		신민채 구매	2000
남편과 희진이 함께 찍은 사진			
비커		오세령 구매	개당 460
암막커튼	암막시트지	오세령 구매	
건조대			14850
약품통+라벨지			
집게		오세령 구매	24000(2ea)
철제/플라스틱 트레이(बाट)		오세령 구매	8700
플라스틱 통들		오세령 구매	1690
암등			
필름건조기	x		
현상된 필름	가진거 하나, 제대로된거, 걸어놓을거 2개 이상까지 최		
패드(led 조명판)		오세령 구매	
하얀 라이트			
스탠드 전구	전구만 있음		2000
사진 여러장	천문사진, 남편희진 사진 이외에		
감광지			
철제판	철지로 변경	오세령 구매	11700(3p)
자석			7630
인화지			35000
가위			
건조용 끈		오세령 구매	5940
사진 달아놓을 집게		오세령 구매	7950
빈 그릇 몇 개	반찬접시 세 개, 밥그릇 한 개, 국그릇 한 개?	신민채 구매	8000
수저 두 벌			
요코하			

4) 로케이션 헌팅

- 은평구 증산동 2층 단독주택 (보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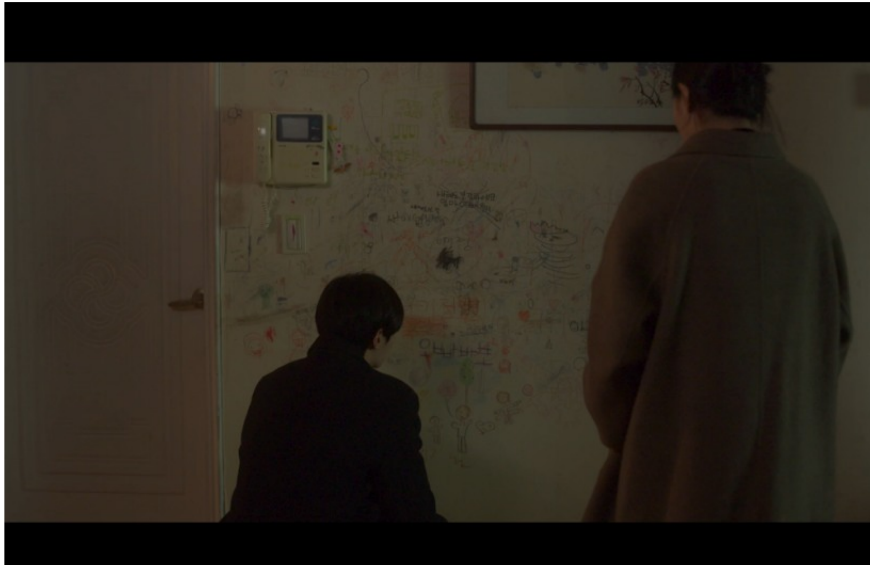
2 층은 오래된 주택의 모습을 간직하여 아이들의 낙서가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고 1 층은 현상실로 꾸미기 용이한 주방이 있어 이곳을 선택하였다.



전경



현상실로 꾸민 모습



낙서가 있는 2층

- 종로구 익선동 고주택(대모님 댁)

서울에서 찍어야 함에도 시골의 오래된 주택처럼 보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작은 마당에서 유골함과 동생의 등장을 보여주고자 하는 연출 계획을 무너뜨리지 않아야 했다. 동시에 밤/낮 조명을 손쉽게 바꿀 수 있도록 외부에서 조명 사용이 가능한 주택을 찾았다.



입구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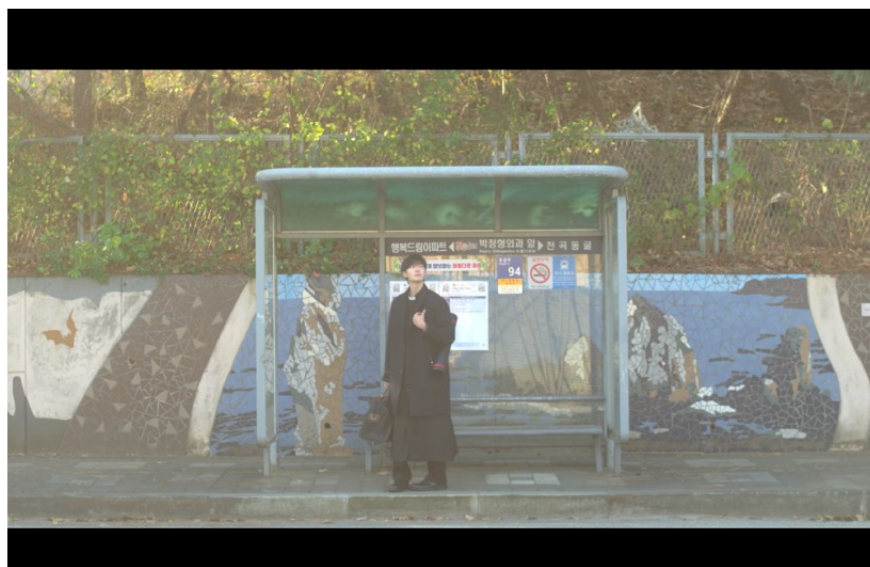
- 강원도 동해시 산불 현장

연초 산불 소식을 들은 이후로 이 곳에서 찍어야겠다고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였다. 타버린 산에 새로운 생명을 심는 이야기를 담기 위해 산 로케이션이 꼭 필요했는데, 배우와 스태프를 이송하기 위한 차가 코앞까지 닿을 수 있는 타버린 산을 찾았다.



타버린 산

-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굴 앞
성당은 서울 길음동 성당에서 찍었으나 시골스러운 버스정류장과 우체통 앞
풍경을 담기 위해 강원도로 촬영을 넘겼다.



천곡동굴 앞 버스정류장



천곡동굴 앞 우편함

-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수욕장

사람의 인적이 드물고, 모래사장이 있으며 동시에 바위에 바닷물이 부서지는
해수욕장을 찾았다. 더불어 어선 등화가 밤에 반짝이고 기차가 지나는
해수욕장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수욕장 후경



강원도 동해시 한섬해수욕장 전경

- 강원도 횡성시 횡성성당

종탑에 사람이 오를 수 있고, 그 안에 실제 종이 있으며, 종탑에서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창이 나있는 성당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해당 로케이션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에서 주인공 미자가 성폭행 당한 소녀를 추모하기 위해 들른 로케이션이다.



강원도 횡성시 횡성성당 종탑



강원도 횡성시 횡성성당 본당

- 강원도 횡성시 십자가의 길 예수 14 처(골고다 언덕)



강원도 횡성시 십자가의 길

- 수선관 별관 옥상(종탑 위 외부)



-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계곡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성당



5) 프로덕션

12월 16일 수요일 06:30부터 12월 20일 23:30까지 5회차 촬영을 했다. 1회차는 길음동 성당과 성균관대학교에서 촬영을 했고 다음날 이른 아침 횡성으로 넘어가 2회차는 횡성 성당에서 종일 촬영을 했다. 3회차는 동해로 넘어가 버스정류장, 우체통, 타버린 산, 밤바다를 촬영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4회차 오전엔 진관사계곡에서 촬영을 하고 오후엔 익선동으로 넘어가 대모님 댁을 촬영했다. 5회차엔 병원을 촬영한 뒤 증산동 보육원 씬을 촬영했다. 배우와 스태프를 포함한 인원은 대략 20명 내외였으며 엑스트라를 대량으로 활용한 장면에서는 40명 내외의 인원이 참여하였다. 차량은 9인승 카니발 1대와 스타렉스 5밴 2대를 임차하여 사용했고 식사와 커피, 간식을 아끼지 않고 제공하여 복지 문제에 있어 불만이 없게 하였다.

6) 후반작업 계획

영화제 출품에 관한 러닝타임과 관계 없이 최상의 편집점을 찾을 계획이다. 또한 편집 시 이미지를 먼저 고려하고 후순위로 대사를 고려할 것이다. 계획한 연출안대로 찍지 못한 부분(비가 내리는 씬)에 대해서 추가촬영을 고려하고 있으나 출품 전까지 촬영이 불가능하다면 포기할 계획이다. 또한 DI 작업에서 희진과 다경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화면 질감을 나누어 부여하려 한다. 사운드 작업에서는 모든 씬의 현장 녹음을 뮤트한 뒤 적절한 엠비언스를 찾아 믹싱 작업의 기초를 쌓고 나서 기존 음향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할 것이다.

3. 결론

1) 총평

일부 샷들은 프리 과정에서 계획했던 최상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었으나 대체로 아쉬운 샷들이 많았다. 다만 계획했던 대로 하지 않았던 종탑 씬(현장에서 배우들의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대안으로 촬영)은 현장에서 순발력을 동원해 찾은 것임에도 만족감을 느낀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0회차 촬영을 했으면 연출하려 했던 모든 디테일을 잡아가며 촬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드라마를 보여주는 데에 있어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소나기 씬을 추가로 촬영할 수 있다면 절반이 아닌 완전한 성공을 거둔 것이라 생각한다. 분명 한국 소설과 고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신앙인들, 배덕감을 느끼는 아슬한 사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만한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상업영화에 익숙한 관객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소가 군데 군데 발견된 것 같다.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배우가 촬영 도중에 감기에 걸렸다. 추후 겨울 촬영 시 배우들의 체온 조절을 위해 핫팩, 수건 등 보다 확실한 방한 대책을 미리 고안해야 할 것 같다.
- 감독을 포함한 키스텝의 운전이 피로도를 올려 결과물의 퀄리티를 낮췄다. 다음부터는 로드매니저를 섭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 일부 샷들이 드라마를 위해 필요하기에 찍은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개별 샷들이 모두 미적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콘티를 치밀하게 구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PD 의 숙련도가 낮은 것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추후 영화 제작 시 스스로 제작에 대해 먼저 공부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체득한 뒤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PD 를 섭외하려 한다.
- 프리 과정에서 분업 없이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다가 늦어진 부분이 큰 실책이라고 느낀다. 다음부터는 프리에 여유를 만드는 확실한 분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 부록

1) 시나리오

2) 일일촬영표

3) 플로어플랜

4) 콘티